

황준걸 교수의 『중국맹자학사』  
 (원제: 『孟學思想史論』Ⅱ)  
 - 맹자학의 시야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함영대\*

## 1. 최근 출간된 2종의 경학연구 번역서

한국 경학연구는 현재 적지 않은 노정을 거쳐 어느 정도 학술적인 면모를 구축하고 있다. 학회를 창립하고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경전에 대한 전문연구서들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한국학계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다.<sup>1)</sup>

최근 2권의 본격적인 경학연구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尙書學史 -상서에 대한 2천 여년의 해석사』, 劉起鈺 저(1989), 이은호 역(2016), 예문서원과 『이천년 맹자를 읽다 -중국맹자학사』(원제: 『孟學思想史論』Ⅱ), 黃俊傑 저(1997, 2006), 함영대 역(2016), 성균관대 출판부는 그 원저가 상서학과 맹자학에 대한 걸출한 연구서로서 연구자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 E-mail: alongdiri@hanmail.net

1) 경학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진작부터 조선경학의 특질을 주자학과 반주자학(또는 탈주자학)으로 구분하고, 주자의 텍스트인 四書集註나 四書大全에 대한 거리와 대응을 주요한 경전연구의 검토대상으로 서술하는 것은 실학연구의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한국 경학연구의 범주와 내용을 단순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논점을 개발하고, 좀 더 다각적인 시야에서 한국 경학의 논점들을 설정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들에게는 진작부터 널리 읽혀졌던 것인데 이번에 나란히 한국어로 출간되어 학계의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황준걸 선생의 『이천년 맹자를 읽다 -중국맹자학사』(원제: 『孟學思想史論』Ⅱ)는 중국 맹자학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논의의 전면에 제시되어 있어 맹자학 연구에 요긴할 뿐 아니라 경학연구의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한국의 경학연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전체 내용을 소개하고 황준걸 선생이 제기한 시야와 연구방법론을 위주로 그 쟁점을 검토해 본다.

## 2. 黃俊傑 교수의 『中國孟子學史』 簡概<sup>2)</sup>

‘중국맹자학사’라고 이름 붙인 이 책의 원제는 『孟學思想史論』Ⅱ이다. 대만의 저명한 思想史家이자, 동아시아 유학연구자인 黃俊傑선생이 1997년 대만중앙연구원에서 출간한 것이다. 중국 사상사의 시야에서 맹자해석사의 발전을 추적한 저서인데 1991년에 출간한 『孟學思想史論』Ⅰ을 잇는 속편이다. 맹자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전편을 이어 역사적 변천에 따라 순자, 주자, 황종희, 대진, 강유위 등 저명한 학자들이 거론한 중국 맹자학의 핵심 쟁점을 검토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야에서도 이 책의 문제제기는 유효하며, 폭넓은 연구 시야와 치밀한 연구방법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

황준걸 선생은 이 책을 저술한 이후 동아시아 맹자학 전체를 검토한 『맹학사상사론』 3의 집필을 기획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의 맹자학에

---

2) 황준걸, 『중국맹자학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황준걸 저, 함영대 역(2016), 「역자 후기」, 『이천년 맹자를 읽다 -중국맹자학사』, 성균관대 출판부, 851~855면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대한 몇 편의 단편논문을 외에는 저술로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sup>3)</sup> 그의 연구 방향이 동아시아 유학 전반에 대한 연구로 전환된 것은 한국과 일본의 맹자학 연구 성과, 특히 한국 맹자학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여 전체적인 시야를 논하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격적인 저작으로서의 맹자학 연구는 일단 여기까지로 끝맺은 셈이다.

맹자학사 연구의 흐름에서 보면 이 책은 같은 해, 1997년 중국의 강소고적출판사에서 출간된 북경대 董洪利 선생의 『孟子研究』와 더불어 중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이후 중국 맹자학의 주요한 성과는 상당 부분 두 선생의 저작이거나 또는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황준걸 선생의 제자인 張崑將 교수가 일본 고학과 맹자학을 연구한 것<sup>4)</sup>이나, 李暢然교수가 청대 맹자학사를 조망한 것<sup>5)</sup>을 비롯하여 동홍리 선생의 제자들이 중국 단대사 맹자학을 개척한 것<sup>6)</sup> 등은 그 좋은 예이다.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내가 황준걸 선생님의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성호학파의 맹자학'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2008년 즈음이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경학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확고한 연구방법론의 부재이다. 어떠한 입각점으로 『맹자』를 논해야 경학을 통한 유학사에 대한 효과적 탐색이 가능할까? 주자학과 반주자학의 시야

3) 그럼에도 동아시아 유학과 관련한 편서와 저작은 계속 이어졌다. 編, 『中日四書詮釋傳統初探』(上)(下); 編, 『東亞儒學研究的回顧與展望』; 編, 『東亞儒者的四書詮釋』; 著, 『徳川日本論語解釋史論』; 編, 『東亞視域中的茶山學與朝鮮儒學』; 著, 『東亞儒學: 經傳與詮釋的辨證』; 編, 『朝鮮儒者對儒家傳統的解釋』

4) 張崑將, 『日本徳川時代古學派之王道政治論 -以伊藤仁齋, 荻生徂徠中心』, 臺灣大學出版部.

5) 李暢然(2011), 『清代『孟子』學史大綱』, 北京大學出版部.

6) 다음의 연구서들이 대개 그 사례들이다. 李峻岄(2010), 『漢唐孟子學術論』, 齊魯書社; 蘭翠(2014), 『唐代孟子學研究』, 北京大學出版社; 周淑萍(2017), 『兩宋孟子學研究』 동홍리의 제자는 아니지만 맹자 斷代史 연구로 劉瑾輝(2007), 『清代『孟子』學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등도 주목할 만하다.

만으로는 조선 맹자학의 내밀한 세계를 곡진하게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쉽게 타개책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때 접한, 중국의 주요한 맹자학 성과들을 두루 고찰한 황준걸 선생님의 시각과 접근법은 조선 맹자학의 탐구에도 매우 긴요하게 느껴졌다. 황선생이 보여준 논점들은 박사논문에는 물론 이후 조선 맹자학사의 다양한 국면들을 탐색하는 데에 적지 않은 혜안을 제공했다.

이 책에서 황준걸 선생님은 중국의 맹자해석사에는 주석자의 심리적 역정을 드러내는 해석과 정치학적 해석, 호교학적 해석이 있다고 지적하고 맹자 당대부터 20세기 초 신유가에 이르는 학자들의 맹자 해석의 특징적인 면모를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 맹자학의 핵심 쟁점에 대한 시각과 맹자 해석학을 통해 중국 해석학을 구축하려는 황준걸 선생님의 진지한 시도는 맹자 연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풍부한 논점을 살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날카롭게 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데 큰 동력이 된다.

『맹자』라는 유교 경전을 상아탑 속의 고문대책이 아니라 고난 받는 인민을 위해 정의를 신장시키는 복음서로 이해하려 한 시각 역시 인상적이다. 경전의 연구를 단순한 유교 경전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인지활동이 아니라 경전 주석자가 경전을 대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경세를 실현하는 실천 활동으로 파악한 점도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황준걸 선생은 현재 대만대학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에서 퇴임하시고, 대만대학 앞에 文德書院을 열어 지금도 활발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생은 근년에 유교경전의 해석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해석학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유교사상과 곡절 많은 대만사의 전개에 대해서<sup>7)</sup>, 또 대학의 교양교육의 신장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

7) 대만과 관련한 연구서로는 『光復初期的臺灣：思想與文化的轉型』；『戰後臺灣的轉型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8)</sup>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전히 현역에서 학자의 길을 묵묵하게 걷고 계신 셈이다. 진정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먼’ 책무의식을 지닌 유자의 기상을 온 몸소 실천하시는 것이 아닐까?

동아시아 유학의 흐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 시야 속에서 황준걸 선생이 제시한 맹자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한국의 경학연구도 적지 않은 혜안을 제공한다. 그 주요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해 본다.

### 3. 문제의식과 맹자연구방법론의 검토

황준걸 선생의 기본적인 맹자연구의 문제의식은 이것이다.

중국사상사에서 맹자를 염두에 두고, 『맹자』를 해석한 사상가들은 내심으로는 맹자의 기상과 호흡하며 정신을 내달리면서도 현실에서는 專制政治와 일원화된 사회구조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양극단에서 삶의 실존적 평형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그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개인의 사상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맹자학을 새롭게 해석했을까? (31면, 自序)

나는 중국 맹자학사를 새롭게 집필하면서 날로 더욱 실감했다. 맹자학을 연구할 때에는 주자가 말한 “장구와 훈고의 사이에 골몰하고 규범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말을 봉행하여 원칙을 부지런히 준행했을 뿐 아니라 또한 유구한 경전 주소에서 드러난 중국의 학문전통 가운데 주석학의 유형과 그 내용의 함의를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역대 유학자들 가운데 일어나 맹자를 주석한 이들이 적지 않은 까닭은 맹자의 사상 세계가 학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승경을 찾아다니게 했던 것

---

及其展望』: 『臺灣意識與臺灣文化』 등이 있다. 모두 臺灣大學出版部の 東亞文明研究叢書로 출간되었다.

8) 대만대학출판부의 大學通識教育叢書로 출간된 6권의 책이 있다.

이 아닐까 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맹자와 역대 주석자들 사이에 언어성과 맥락성이 단절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33면, 자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성과 맥락성의 단절’은 당대문헌에 대한 현대 연구자들의 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해석상의 난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선생은 중국의 맹자학을 크게 세 분류로 설정했는데 1. 경전 해석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주석학, 2. 정치학적 주석학, 3. 호교학적 주석학이 그것이다.

경전 해석자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으로 조기의 경우처럼 경전 해석자가 자신의 삶의 국면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경전 해석에 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이고, 정치학적 주석학은 맹자의 논점 가운데 정치성이 강한 경우나 강유위의 경우처럼 주석자의 처지가 정치적 격랑에 처해 있을 경우 정치학적 관점이 반영된다는 것이며, 호교학적 해석학은 대진의 경우처럼 맹자 본연의 해석을 회복하기 위해 주석자가 해석적 작업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주요한 맹자 해석을 귀납법적으로 관찰한 결과 제출된 것으로 대체적인 분류에 불과하며 반드시 이들 부류로 맹자해석 전체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석상의 이러한 분류적 접근법은 주석서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학의 연구에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황준걸 선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맹자 해석의 도정이 전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음을 고백했다.

1. 중국의 다양한 맹자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가? 또 그것은 맹자학사의 발전에서 어떠한 사상사적 함의가 있는가?
2. 맹자학의 구체적인 발전경험은 중국 문화와 사상적 특징을 지닌

중국해석학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드러내는가? (43면, 서론)

기본적으로 황선생의 맹자 해석사에 대한 연구는 맹자해석의 양상과 그 사상사적 의미를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중국해석학의 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석서에 대한 검토의 최종 목표를 중국 해석학에 대한 이론의 정립에 두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 경학연구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황선생은 맹자 주석서에 대한 검토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1) 言內之意: 역대의 맹자 주석의 당대적 의미
- 2) 言外之意: 맹자의 주석자들의 경향성이 반영된 해석의 의미
- 3) 言後之意: 주석이 지니는 효과로서의 의미 (50면, 서론)

그 결과 맹자학 연구의 의미는 이렇게 되새겨졌다.

맹자학의 해석자는 바로 『맹자』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기와 맹자 사이의 시공간의 거리로 인해 비롯된 언어성과 맥락성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신이 맹자의 손을 잡고 맹자와 함께 걸으며, 아울러 맹자와 정신적으로 교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의 연구는 역대 맹자 해석자들이 어떻게 『맹자』 해석을 통해 자기를 이해했으며, 또한 그들의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어떻게 선현들이 남긴 뜻을 밝히고, 잠재된 덕의 그윽한 빛을 드러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51~52면)

이러한 경전의 주석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은 주석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연구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곧 맹자를 연구하는 것이 미이라처럼 박제화 된 대상에 대해 연구자가 감정을 제거하고 박물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여전히 대화를 요청하는 생명력 있는

목소리에 대해 현대의 의식있는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한다는 것이다. 이후 상술되는 해석자의 역사성이나 문제의식의 자주성, 해석의 순환성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다.<sup>9)</sup>

황선생이 정리한 기존 맹자학 연구의 쟁점을 살펴본다.

### 1) 맹자학 연구의 관념사적 방면의 논점

맹자의 심학을 연구할 때에 품었던 문제의식과 1930년대 리처드가 가졌던 관심사는 서로 가깝다. 우리들이 조금 정리해보면 대개 아래의 문제로 조직할 수 있다.

- 1) 맹자 성선설의 근거는 무엇인가? 본성과 마음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성선설은 현대적으로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
- 2) 맹자사상 가운데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음과 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맹자 養氣의 학문적 함의는 무엇인가? 맹자의 氣와 心·形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맹자학 연구에서 항상 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주요한 연구자로 錢穆(1895~1990), 徐復觀(1903~1982), 唐君毅(1908~1978), 牟宗三, (1909~1995) 등의 연구자들은 공헌이 탁월하고 근년에는 李明輝(1952~), 袁保新(1952~), 楊儒賓(1956~), 信廣來(1952~), 池田知久(1942~), 黃俊傑(1946~) 등의 학자를 거론했다. 또 황선생은 전목의 견해를 수

---

9) 이 점에 대해서는 황선생은 2장 「맹자학 해석사에서 일반 방법론의 문제」에서 상론했다.



용하여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맹자가 성선을 말한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의 향상되려는 노력을 격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거나 향상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맹자가 성선을 말한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함께 대화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맹자의 성선론의 의의는 인류 최고의 평등이 되고 또한 인류 최고의 자유가 된다. 사람들은 모두 선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으니 이것이 평등이고, 사람이란 누구나 선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자유이다. 맹자 성선설에는 자유와 평등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 전목 선생의 견해는 맹자 성선을 논한 참신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이전 시대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맹자 성선설은 여러 개의 단위관념unit-ideas이 포괄되어 있는 하나의 관념총체ideas complex이다. 당대의 학자들은 성선이라는 관념총체에서 각자 다른 면을 발굴하여 창의적인 것을 획득했다. (57면, 서론)

이 외에도 이명휘와 원보신, 양택파의 연구성과를 거론했는데 그 핵심은 관념총체에서 단위관념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 논점에 대한 청신함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히편 심신관계론에 대해서는 양유빈의 연구를 특기했다. 그 핵심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서로 연관되어 상호 영향을 끼치는 유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 황선생은 심학이 실로 氣論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養氣工夫가 이르는 곳은 신체의 정신화-양유빈의 용어이다-혹은 정신의 신체화라고 보고, 이러한 기론과 신체관은 맹자 후학의 손에 이르러 발전했으므로, 우리는 맹학 사상사의 '내면으로의 內轉'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1973년 마왕퇴 한간 백서 『오행편』 등이 출토와 더불어 여전히 발전적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 2) 맹자학 연구의 역사 사상사 방면의 논점

역사·사상사에서 맹자학의 연구방법을 발굴한 학자들로 서복관, 호육환胡毓寰, 가야나 오사무金谷治(1920~), 가가 에이지加賀榮治, 이토 토모아쓰伊東倫厚(1943~), 곤도 마사노리近藤正則, 황준걸 등을 들었다. 그들의 관심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 1) 맹자는 어떠한 역사 배경 속에서 어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제를 생각하는가? 맹자의 역사관은 어떠한가? 그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가?
- 2) 송대 맹자학이 크게 융성한 역사적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송대 유학자의 맹자학 쟁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사상사적 함의가 있는가?
- 3) 주자는 어떻게 맹자학을 해석하는가? 주자의 해석은 무엇 때문에 후대 유학자들의 격렬한 비판을 불러오는가? 그 가운데 변화하는 사상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 4) 청대 맹자학에서 새롭게 발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사상사적 의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황선생은 자신이 제기한 역사적 접근에 대한 의견을 간결하게 제시하는데 그 핵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장에서 「송대 유학자들의 맹자 정치사상에 대한 쟁변과 그 온축된 문제-맹자가 周王을 대하는 태도를 중심으로」에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논점들에 대해 분석했다. 무엇 때문에 맹자 不尊周의 행위와 사상이 다른 시대가 아닌 송대에 비로소 이처럼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 송대 사상가들이 맹자

학 가운데 이러한 논제를 주목하고 또 쟁론하게 되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송유들이 맹자의 정치사상에 대해 쟁변한 계기는 맹자 불존주한 것과 아울러 제후들에게 천하를 통일하라고 권한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맹자의 불존주가 논쟁의 계기가 된 실제적인 이유는 북송 정치사의 특수한 배경에 있다. 북송이 건국된 이래의 큰 환경으로 본다면 맹자 불존주의 이 사실에 잠재된 왕패이질론과 군신상대론은 북송 이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존왕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모두 물과 불같은 형세를 보인다. 왕안석의 변법이 특별히 맹자를 표방하여 정신적 지주로 받든 것으로 보면 맹자는 은연중에 왕안석 신법운동의 배경이 되어 마침내 신법을 반대하는 인사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양대 정치사적 요소의 진폭작용으로 맹자의 불존주는 끝내 대중의 화살을 맞는 표적이 되어 송대 유학자들의 맹자학 논쟁에 불을 지폈던 것이다.

이어 왕패지변과 군신지분의 역사 사상에서의 의미를 지적하고, 주자와 대진, 초순과 강유위와 당대 맹자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다.

주자의 맹학 해석은 새로운 것을 개척한 것과 옛것을 지킨 것을 융합하여 한 풀무에서 도야했다. 주자가 경전을 주석하면서 구축한 理 중심의 철학 체계는 오래된 병에 새로운 술을 담은 것으로 중국 사상가들이 繼往開來의 특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 주자는 맹자학에 대한 해석 가운데 四書의 사상을 융합적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관통하는 체계를 구성하여 五經의 권위를 대체하는 사상적 기초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이후 700년 유학사상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본방향이 되었다. 위대한 공로다. 주자의 맹자학에 대한 해석 중에는 심각한 道問學의 사상 경향이 깃들어 있다. 대개 주자는 『대학』으로 『맹자』를 해석했다. 그러므로 유학의 전통적인 방법 가운데 도문학 계열의 사상과 가까웠다. 이것은 기본 입장이 漢唐의 舊學과 북송 이래 신지식이 망라되어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 문제의 시각에서 맹자학 도덕주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했다. 주자가 맹자를 해

석한 공헌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한계 역시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sup>10)</sup>

나는 대진의 맹자학 해석은 확실히 일본론의 이론 기초에서 출발하는데 그는 자연과 필연을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고 하며 맹자의 성선론을 해석했다고 본다. 그는 “대개 사람의 삶은 血氣와 心知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맹자의 성선론과는 모두 어긋남을 면할 수 없고, 도리어 ‘生之謂性’는 옛 전통에 가깝다. 대진은 인의예지는 血氣와 心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가운데에서 理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맹자의 人獸之別과 천도와 인도가 誠을 통해 소통된다는 사상과도 어긋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적 입장에서 분석하면 대진은 혼고학적 방법론을 통해 해석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얻은 바도 있고, 잃은 바도 있는데 그 뛰어난 점에도 그 약점 역시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대진의 맹자학에는 강렬한 護敎學적인 특질이 있다. 유학 내부에서 말하면 대진은 맹자의 原義를 새롭게 해석하여 송대 유학자들을 배격했다. 다만 유가 불가 도가의 상호 작용으로 말하면 대진은 또한 송대 유학자들을 반대하는 것을 통해 불가와 도가의 학문을 비판하고 그가 이해한 고전 맹자학의 체계를 재건했다.

초순의 『맹자정의』는 청대 맹자학의 일대 성취이다. 林慶彰(1948~)은 최근의 연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초순은 『맹자정의』를 지을 때에 당시의 초기 『맹자장구』의 선본에 근거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널리 받아들이고, 乾嘉 이전의 청대 유학자들의 자료를 彙編하여 고증과 의리를 한 화로에서 도야하여 종종 초순의 『맹자정의』를 성취케 하여 『맹자』 주석사에서의 지위를 다지게 했다.<sup>11)</sup> 초순은 『역』으로 『맹자』를 해석하여 맹자학 가운데 性, 天道의 여러 개념을 해석했는데 모두 맹자학과는 맞지 않았다.<sup>12)</sup>

10) Chun-chieh Huang, "The Synthesis of Old Pursuits and New Knowledge: Chu Hsi's Interpretation of Mencian Morality," *New Asia Academic Bulletin*, No. 3 (Hong Kong, 1982).

11) 林慶彰, 「焦循『孟子正義』及其在『孟子』學之地位」, 黃俊傑編, 『孟子思想的歷史發展』, 217~242면에 수록.

12) 黃俊傑, 「孟子盡心上第一章集釋新詮」, 『漢學研究』, 10卷 2期, 1992, 12, 99~122면 참고.

19세기 말기 이래로 서방열강이 중국에 침입하여 중국의 위기가 날로 심해져 강유위는 1901년에 『孟子微』를 완성했다. 入世의 정신으로 맹자의 해석을 통해 中西사상을 융합했는데, 그의 스승 朱九江이 漢宋을 두루 통하는 학풍과 확실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강유위의 사상 세계는 광대하면서도 내용이 갖추어져 있으며, 中西를 아울러 채택하고 新舊를 회통하여 ‘去種界, 同人類’ 이상을 사상사에 구체적으로 실현했다. 『맹자미』를 중심으로 우리들은 중서사상이 어떻게 청말의 중국 사상계에서 융합하여 새로운 관념과 사조를 만드는가를 볼 수 있다. 강유위는 서방 근대의 민주·자유·평등·사회다원주의·중상주의 등의 관념이 모두 맹자학의 전통과 상호 융합하여 절충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상의 요소를 창조했다.

당대 유학자들의 맹자학 연구 가운데 서북관은 이 맥락성을 가장 잘 활용했던 분이다. 그는 맹자사상을 역사와 화문화의 맥락에서 고려하여 맹자의 성선설은 역사 문화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맹자의 踐形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도덕 주체성을 충실히 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을 재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점은 서북관이 맹자의 內聖之學을 논한 매우 탁월한 견해이다.<sup>13)</sup> 근래 중국 대륙의 맹자학을 연구한 논저의 결함 가운데 하나는 맹자 사상을 시공간의 맥락을 벗어나 평가한다는 것이다.<sup>14)</sup> 일본의 이치카와 혼타로 市川本太郎가 맹자의 사상을 연구한 대저<sup>15)</sup> 또한 이러한 병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아사이 시게노리 淺井茂紀<sup>16)</sup>가 맹자의 예론과 왕도론을 분석한 것은 미처 역사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다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역사·사상사적 접근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황준걸 선생의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역사 문화적 맥락

13) 이 책의 10장의 분석 참조.

14) 山東孔孟學研究叢書編輯委員會主編, 謝祥皓編, 『孟子思想研究』(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86) 또한 황준걸의 『新史學』, 1卷 3期(1990, 9) 133~136면의 서평 참고.

15) 市川本太郎, 『孟子之綜合的研究』(長野: 市川先生紀念會, 1974).

16) 淺井茂紀, 『孟子の禮知王道論』(東京: 高文堂出版社, 1982).

에 대한 저변의 이해에 매우 적극적인 연구방법을 택한다. 왜 그러한 해석이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사상사가적 안목인데, 이러한 논점에 대한 치밀한 접근은 해석의 의미를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 3) 연구방법론의 접근

황준걸 선생은 구방법론에 대해 계속 천착하는데 특히 해석의 양상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 문화 전통 가운데 중국적 특색을 지닌 해석학의 전통을 형성”하는 것에는 방법론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17)</sup>

- 1) 해석자의 역사성: 이것은 해석자와 그 사상이 모두 특정한 역사 조건 아래에 제약된 것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 2) 문제의식의 자구성: 이것은 경전 가운데 문제의식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 3) 해석의 순환성: 이것은 경전 내부의 전체와 부분 사이 및 해석자와 경전 사이에 의미의 순환성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황선생은 이러한 세 가지의 방법론이 근대 서구의 해석학자들과 상호 소통할 만한 측면이 있지만 강렬한 역사성과 현실취향은 중국 해석학의 중대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위훈이 1992년 제기한 창조적 해석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위훈은 다시 1992년의 제2회 당대 신유가 국제학술연토회에서 창조적 해석학을 활용하여 다섯 가지 층차로 진일보한 설명을 했다. 전통 유학의 해석학은 校讎學과 같은 實謂, 훈고학과 같은 意謂, 『사서집

---

17) Chun-chieh Huang, "The Mencius and Historical Hermeneutics," 『清華學報』, 新19卷 2期(1989. 8), 45~65면.

주』나 『四書纂疏』와 같은 蘊謂 등 3개 층차에서 이미 학문적 규모를 갖추고 있다. 현대 유학의 한 방면은 이러한 전통 유학의 학문성과를 계승하고 별도로 한 방면으로는 또한 일상 언어의 분석, 어의학,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해체이론 등 특히 분석을 중시하는 서방의 철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 자체의 해석학의 상세한 부분에서의 공부의 부족을 보충해야 한다. 동시에 현대 유학연구자는 當謂와 創謂의 두 층차의 해석학과 사유방법론의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sup>18)</sup>

또한 현재 맹자학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현황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지적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과거 수십 년간 국내외 학술계는 중국사상사에서 맹자학 연구에 대해 이미 불만한 연구성과를 적지 않게 축적했다. 일본 중세 이전의 맹자학 연구는 이노우에井上順理의 전문적인 연구서가 참고할 만하다.<sup>19)</sup> 다만 조선시대(1392~1910) 맹자학은 여전히 전면적인 연구가 여전히 빠져 있다. 이노우에의 연구를 근거로 보면 일본은 文德 2년(852년) 滋野貞主가 편찬한 『經國集』에 이미 『맹자』의 문구가 인용되어 있고, 寬平 연간(890년대) 『맹자』는 이미 『日本國見在書目錄』에 저록되어 있다. 이후 經鎌倉 남북시대와 室町 시대에 『맹자』는 일본에 매우 널리 유전되어 지방 학자들이 『맹자』를 익혔음은 물론 조정막부와 박사가 또한 강독하고 전수했다. 덕천시대(1600~1868)에 이르러 유학연구는 크게 일어나 이루다 셀 수 없는 별과들이 유행했다. 주자학과, 절충학과, 양명학과 등등이 있고, 더욱이 주자학과는 大宗이 되어 주자의 『사서집주』는 또한 일본 유학자들이 숙지했다.<sup>20)</sup> 덕천의 유학자들이 맹자학에 대해 저작한 것은 거의 500여 종이 되는데<sup>21)</sup>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은 이치로關儀一郎이 주편한 『日本名家四書註釋全書』(동

18) 傅偉勳, 「現代儒學的詮釋學暨思維方法論建立課題」, 江日新編, 『中西哲學的會面與對話』(臺北: 文津出版社, 1994) 127~152면 수록.

19) 井上順理, 『本邦中世에서의 孟子受容史의 研究』(東京: 風間書房, 1972).

20) 井上順理, 앞의 책, 214면.

21) 井上順理, 「近世邦人撰述孟子注釋書目稿」, 『池田末利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集』(1980) 903~942면.

경: 봉출판, 1973)에 수록되어 있고, 이 저작 이전에 출판된 것은 이 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과 카니에 요시마루蟹江義丸이 편집한 『日本倫理彙編』(동경: 育成會, 1901) 및 이치로가 편집한 『근세유학사료』(동경: 반충서방, 1924초판, 1976재판) 등으로 이 책들도 덕천 맹자학의 상당한 저작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사서학의 저작은 수량이 매우 많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은 1991년 『한국경학자료집성』을 편집 영인하여 발행했다. 권질이 호한한테 그 가운데 제1집은 『대학』, 『중용』의 주석자료의 휘편이고, 제2집은 『논어』 주석 자료의 휘편이며, 3집은 『맹자』 주석 자료의 휘편으로서 모두 96종 14책이다. 이는 우리가 동아유학사의 체계를 일부 세울 때에 중요한 기초이며, 노력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4) 기타 황준걸 선생이 제기한 맹자 해석상의 특이점

『맹자』의 정치사상의 특질은 인민의 관점에서 정치를 논하고 주나라 말기 군주의 전제정치로 학정을 행할 때에 ‘民本’의 古義를 거듭 천명한 것에 있다. 이를테면 소공권(1894~1981) 선생이 말한 “맹자의 정치사상은 포착한 정치에 대해서는 영원히 항의한다는 지침이 되었다.”는 것이다.<sup>22)</sup> 진한의 대일통제국이 출현한 이후 중국의 정치 현실은 전제정치가 그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자』는 상아탑 속의 高文典冊일 수가 없었고, 전제정치와 싸워 인민의 정의를 신장시키는 복음서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보면 중국 전제정치의 현실은 『맹자』와 그 정치사상을 압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맹자』는 또한 전제정치는 유력한 사상적 무기가 되었다.

해석자들은 모두 계통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 자기의 사상맥락으로 부여받은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진부한 책들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출하는데, 그들의 사상 계통은 특정한 시공간의 조건 속에서 산출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계통의 ‘역사성’ 때문에 경전의 해석자들

22)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臺北: 聯經出版公司, 1980) 上冊, 96면.



은 그들의 사상계통에서 이해한 경전의 함의와 경전을 지은 작자의 原意 사이에는 반드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와 거리는 사상사와 해석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를 구성하게 된다.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관념을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러브조이 Arthur O. Lovejoy의 관념사 방법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나는 일찍이 러브조이의 방법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sup>23)</sup> 여기에서는 그 방법론 가운데 본 장과 관련 있는 것만을 간략하게 논의해 본다.

러브조이는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Ideas』라는 명저에서 이른바 ‘관념사’ 연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sup>24)</sup>

- 1) 어떠한 사상 혹은 한 시대에 내재된 ‘기본가설’ 혹은 ‘무의식적인 마음의 습관’
- 2) 어떠한 사상의 ‘변증법적 동기’
- 3) 어떠한 사상 혹은 관념의 ‘형이상학적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
- 4) 哲學語意學 연구

## 5) 사상의 대원칙 및 그 형성의 상관관념

러브조이의 ‘관념사’ 연구는 분석화학자들의 태도와 근사하여 같은 모양으로 수많은 관념총에서 단위관념 unit-idea을 분석하는 것이다. 러브조이가 말한 관념사의 연구방법은 연구자들이 문학·철학·예술·종교 등과 같이 서로 같지 않은 학과나 영역,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 고대나 중세 혹은 근대와 같이 서로 같지 않은 시대의 연변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마땅히 주의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

---

23) 黃俊傑, 「思想史方法論的兩個側面」, 『國立臺灣大學歷史系學報』, 第4期 (1977, 8), 黃俊傑編譯, 『史學方法論叢』(臺北: 臺灣學生書局, 1977, 1981) 243~301면 참고.

24)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A Study of the History of Idea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p.3~23.

다. 러브조이의 이른바 ‘단위관념’은 ‘관념총’ 가운데 다시 세분화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 관념을 말한다. 이른바 ‘관념사’ 연구는 이러한 ‘단위관념’의 발전역정에 나아가 깊이 분석하여 문화의 ‘내재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증차의 순환성은 『맹자』 내부적 의미의 순환성이다. 『맹자』 내부에 관한 의미는 초순이 이른바 “훈고전적에 명백하게 밝은” 작업은 그 사실 가장 초보적인 작업일 뿐이어서 참으로 주자가 『語孟集義序』에 말한 것과 같다. “漢魏의 여러 유학자들은 音讀에 바르고, 훈고에 정통하고, 제도를 고증하고, 명물을 분별하였으니 그 공이 넓다. 학문이 진실로 그 선류를 섭렵하지 못한다면 또한 어찌 여기에 힘을 쓸 수 있겠는가?”<sup>25)</sup> 한나라의 注와 당나라의 疏는 후대 학자들이 경전을 해석할 때 근거할 만한 초보적인 문헌으로 확실히 연관되어 있다. 다만 근근이 장절을 찾고 구절을 적출하며 일마다 반드시 여러 전거를 인용해야 한다면 절대 경전 속의 의미의 순환성에 깊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경전 속 의미의 순환성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牟宗三(1909~1995)이 말한 문구해독으로 중심을 삼는 ‘文獻途徑’을 취해야 한다.<sup>26)</sup> 모중삼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문헌의 도경을 밝히려면 가장 먼저 구의 句意에 정통해야 하며 단락에 정통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하나의 합당한 개념을 형성하고, 합당한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하나의 개념이 속한 일방면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sup>27)</sup> 이것을 좀

25) 朱熹: 「語孟集義序」, 『朱文公文集』 卷75, 1390b면. “漢魏諸儒, 正音讀, 通訓詁, 考制度, 辨名物, 其功博矣. 學苟不先涉其流, 則亦何以用力於此.”

26) 牟宗三, 「研究中國哲學之文獻途徑」, 『鵝湖月刊』, 第11卷 第1期, 1~7면 참조. 문자 훈고와 언어학의 방법으로 사상사의 문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복관 선생의 정심한 논의가 있다. 徐復觀, 『中國人性論史·先秦篇』(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9), 1~14면; 徐復觀, 「研究中國思想史的方法與態度問題」, 徐復觀, 『中國思想史論集』(臺北: 臺灣學生書局, 1975), 1~11면을 참고하면 다시 확인할 것이 없다.

27) 牟宗三, 「研究中國哲學的文獻途徑」, 6면. “講文獻的途徑, 第一步要通句意, 通段落, 然後形成一個恰當的概念, 由恰當的概念再進一步, 看看這一概念屬於那一方面的問題.”

더 설명해보면 경전의 문구 중에 드러나는 개념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반드시 온전한 문장 속에 있거나 내지는 전체 경전의 사상맥락 가운데서야 비로소 장악할 수 있다.

『맹자』와 주석자 사이 문제의식의 순환성이다. 이러한 증차의 순환성과 관련하여 전통 중국학문 가운데 이른바 ‘한학’과 ‘송학’의 차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맹자학을 예로 들면 조기의 고주는 장구를 독실하게 지켜 참으로 阮元(1764~1849)이 말한 “조기의 학문은 마용·정현·허신·복건의 여러 학자와 비교해보면 조금 고루하다. 그러나 글을 잘 분석하고 정황을 잘 비유하여, 훈고에 빠짐이 없고, 맹자 일곱편의 미언대이는 근거가 되어 추측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sup>28)</sup> 청유 초순은 맹자에 주석을 붙이면서 조기의 주석에 대해 또한 얻은 바가 많았다. 비록 그렇지만 초순은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 주의 소루함을 지적하기도 했다.<sup>29)</sup>

그렇지만 송명의 유학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조기는 맹자학의 깊은 뜻에 상당히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많았다. 주자는 “조기의 『맹자주』는 졸렬하여 밝지 못하다.”고 하였고<sup>30)</sup>, 또한 육상산은 “조기의 『맹자』 해석은 글의 의미가 많이 생략되었다.”고 평가했다.<sup>31)</sup>

무엇 때문에 주자와 육상산은 조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혹평을 하였던 것일까? 주요한 원인은 바로 조기가 『맹자』에 주석을 붙이면서 비록 자기의 ‘주체성’이 있었지만 다만 그는 실증주의적 관점과 유사하게

28) 阮元, 「孟子注疏校勘記序」, 阮元, 『孟子』(十三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影印 清嘉慶20年 江西南昌刊本), 15면. “趙岐之學以較馬、鄭、許、服諸儒, 稍爲固陋, 然屬書離辭, 指事類情, 於詰訓無所戾, 七篇之微言大義, 藉是可推.”

29) 焦循 학문의 실사구시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탁월했다. 『孟子正義』는 곳곳에 조기 주석의 결함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孟子·萬章上·6』에서 조기는 “陽城, 箕山之陰, 皆嵩山下深谷之中以藏處也.”라고 했다. 『正義』에서는 諸家の 주정을 인용하여 조기의 주를 반박했다. 아울러 閻若璩의 「釋地」를 인용하여 “趙氏所以誤者, 注書在藏於複壁時, 想無多書冊可討尋, 又無交遊以質問, 虛理或可意會, 實跡豈容臆度? 地理多誤, 正坐此爾.” 이러한 사례는 초순은 학문이 謹嚴하여 비록 대체에서는 趙註에 호응하고 옹호했다고 해도 趙註의 誤謬處에 대해서는 또한 구차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증한다.

30) 黎靖德編, 『朱子語類』, 4冊, 卷51, 1218면. “趙岐『孟子』, 拙而不明.”

31) 陸象山, 『象山全集』(四部備要本), 卷34, 10a-11b면. “趙岐解『孟子』, 文義多略.”

『맹자』 가운데 문헌의 고사·인명·地望 등 표면사물을 주석하여, 조기의 주체성과 『맹자』의 주체성의 관련성이 깊지 않았다.

송명의 유자들은 맹자를 주석하면서 순수 실증주의적 입장을 초월하여 해석자의 주체성과 『맹자』 경전 사이에 서로 교감하여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맹자』는 다시 순수한 ‘대상적’ 존재가 될 수 없었다. 『맹자』와 주자와 같은 송대 주석자 사이에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왕래가 있어 서로 중시가 되어 일종의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어 내외가 서로 빛나고, 주객이 일체가 되어 고급이 서로 두 문지방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천년이 서로 한 방위에서 기척을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맹자와 그 정치사상은 사실상 결코 역사상의 ‘미라’가 아니며, 맹자가 소리 높여 제창한 것은 봉건체제의 輓歌가 아니라 인민승리행진곡이며, 맹자는 확실히 생활현실 속에서 전제적 제왕에 저항한 사상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황준걸 선생은 경전 해석의 순환성에 대해 깊이 지적하면서 해석이라는 행위의 현실적인 의미를 재삼 강조했다. 대상에 대한 이해와 주석자의 의식은 그 생생함으로 인해 “천년이 서로 한 방위에서 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 4. 한국 맹자학 연구를 위한 황선생의 제언과 그 평가

황준걸 선생은 맹자의 정치사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했다.

1. 정치권력의 운용은 백성들의 뜻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2. 권력정당성의 기초는 통치자의 도덕적 성취에 달려 있다.
3. 권력을 행사하는 목적은 백성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의 유학자 金昌協(1651-1708)이나 魚有鳳(1672-1744), 洪泰猷(1672-1715) 등이 논한 맹자 불존주론이나 맹자의 정치론과 관련이 깊은 管仲論이나 湯武革命論 등을 제시하여 이것이 맹자의 仁政說에서 파생된 상관문제가 조선시대에 발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강한 정치성을 함유한 논점들은 조선 맹자학 연구에서도 주요한 연구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맹자의 성선론과 과 사단칠정론의 논변을 소개하면서 이 방면의 연구가 있는 이명희 교수의 『四端與七情：道德情感과 관련한 비교철학적 검토』<sup>32)</sup>를 주요한 연구과제로 지목했다.

한국의 맹자 연구에 대한 황준걸 선생의 지적은 그 나름 의미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정치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다만 황준걸 교수 본인이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한국의 연구 성과에 밝지 못한 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준걸 선생의 맹학사상사론은 연구방법론의 입장에서 매우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의 맹자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경학가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상사가적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논점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에 대한 서술이 매우 풍부하면서도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학술저서로서 상당한 미덕이다.

다만 이 책은 맹자학 연구에서 중요하지만 매우 제한된 문헌을 검토하고 있다. 특징적인 면이 돋보이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다. 또한 중국해석학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지만 그 연구방법론은 대체로 근대 해석학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측면을 보인다. 이 점은 그 연구방법론의 입장을 좀 더 찬찬히 규명해볼 필요를

32) 『四端과 七情：關於道德情感的比較哲學探討』(臺北：臺大出版中心，2005).

제기한다.

또한 연구 입각점의 측면에서 황선생은 전체적으로 주자에 대한 존숭이 없지 않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양명학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있다. 이는 모종삼에게 영향을 받고 전목과 서복관의 가르침을 계승하였으며,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한 이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 황준걸 선생의 맹자해석학은 송명 이학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청대 고증학의 입장과는 다소 그 결을 달리하는 점이 있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조선의 유학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방법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황선생의 시야와 연구방법론은 경학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청대 고증학의 경향을 더 짙게 내포하고 있는 임경창선생의 연구방법론보다는 조선의 유학연구에 더욱 친연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황준걸 선생은 조선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성과가 동아시아 유학연구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이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그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경학 연구를 통해 조선 유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 발표문의 각주는 기 번역원고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연구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추가 설명 없이 함께 제시했다. 양해를 청한다.